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옥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고생과 여대생의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김윤정

여고생과 여대생의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이 옥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윤 정

인 준 서

김윤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 사 위 원 이 정 훈 (인) 

심 사 위 원 김 명 나 (인) 

심 사 위 원 이 목 경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정서표현 양가성과 우울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위험회피 기질 및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여학생 총 54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측정도구로는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회고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척도(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으로 SPSS Window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 t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위험회피 기질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표현 양가성과 우울에서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에서

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에 비하여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위험회피 기질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고,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정서 반응을 받은 사람일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고, 우울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뿐 아니라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의 한 측면인 정서표현 양가성에도 취약한 기질적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타고난 기질 차원을 변화시켜 정서조절 양식과 우울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머니의 반응 양식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개입은 기질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의 건강한 적응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정서표현 양가성, 우울, 정서조절, TCI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 9
 - 1) 청소년 중기(고등학생)의 정서적 특징 9
 - 2) 청소년 후기(대학생)의 정서적 특징 11
2. 위험회피 기질 12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16
4. 청소년기 우울 20
 - 1) 청소년기 우울의 개념 20
 - 2) 위험회피 기질과 우울 22
 -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 23
5. 정서표현 양가성 24
 - 1)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 24
 - 2) 위험회피 기질과 정서표현 양가성 26
 -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정서표현 양가성
..... 26
 - 4) 정서표현 양가성과 우울 27

Ⅲ.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 문제 및 가설	29
---------------------	----

Ⅳ.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30
2. 연구 모형	31
3. 측정 도구	32
4.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36

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7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39
3. 정서표현 양가성과 우울의 연령에 따른 차이	41
4.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42

Ⅵ. 논의

1. 논의	48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56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1> CCNES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34
<표2> AEQ-K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35
<표3> CES-D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35
<표4>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8
<표5>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40
<표6> 우울, 정서표현 양가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	41
<표7>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43
<표8> 경로분석	45
<표9> 변인들의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	47

그림 목 차

<그림1> 연구모형: 부분매개 모형	31
<그림2> 경로계수	4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의 연령 구분에 대하여 학자들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세에서 21세까지를 지칭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따르는 특수한 심리적 문제에 따라 초기 청소년기(12~14세), 중기 청소년기(15~17세) 및 후기 청소년기(18~21세)로 나누고 있다.

한 개인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인 청소년기에는 빠른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성적 성숙이 동반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아동기 때의 발달 양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정서적 변화를 일으킨다(하선근, 2008). 그러나 청소년들은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기에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혼란감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변화들 외에도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비롯된 대학 진학의 부담과 진로 선택의 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이홍석, 2005). 또한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 혹은 진로 등을 충분히 탐색해 볼 시간적 여유의 부재로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에 직면하고, 나아가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받기 시작하면서 갈등과 불안을 느끼고,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청소년기가 중기와 후기로 나누어지고, 각기 다른 발달적 특징과 그에 따르는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지라도 청소년기 동안에 경험하는 불안정한 정서를 적절히 다루는 과정은 두 시기 모두 매우 중요한 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모든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는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성숙과 더불어 차츰 안정되어 가는데(하선근, 2008), 만약 이 시기에 불안정한 정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에는 심리, 사회적으로 적응함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가장 흔한 심리적 부적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김교현, 2004), 이는 청소년기가 성인기로 향해가는 변화가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및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을 고려한다면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우울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의 연구에서 우울을 경험할 확률은 청소년기가 평생 중 가장 높다고 하였고(남정자, 조맹제, 1996), 청소년 중에서 특히 15~18세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양돈규, 1997; Reinherz, Giaconia, Hauf, & Paradis, 2000). 또한 청소년기에 우울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기에도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Garber, Kriss, Koch, & Lindholm, 1988; 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 우울 증상의 수준을 구분하여 성차를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12~13세 이후에 임상적 수준에서 심한 우울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Costello, Mustillo, Erkanli, Keeler, & Angold, 2003; Nolen-Hoeksema & Girgus, 199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기의 우울증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고등학생과 더불어 발달의 연속선 상에서 대학생들의 우울에 대한 예방과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면서 우울증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다양한 연구들에서 우울증의 발생이 개인적인 취약성과 함께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임을 보고하였고, 우울증에 대한 발달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용수, 1991; Cicchetti & Schneider-Rosen, 1984; Kaplan, 1980; Lewinsohn, 1974; Paula & Allen-Meares, 1987). 예를

들면 Cicchetti와 Schneider-Rosen(1984)은 우울의 근원을 개인, 가족, 생물학적, 그리고 환경의 모든 부분들이 함께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질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 Thomas와 Chess(1977)는 개인이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조화적합성(goodness-of-fit)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가진 특성이 환경적인 요구와 불일치하여 부조화를 이룰 때는 왜곡된 발달과 부적응이 일어난다고 하여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조화 즉, 개인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 과정이 이후의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Thomas와 Chess가 언급한 개인의 특성으로서 기질(temperament)이란 개인의 전 생애발달 과정과 적응과의 관계를 논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으로, 정서나 성격 및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의 선천적인 개인차를 반영한다. 또한 기질 특질은 다양한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고(Rettew & McKee, 2005; Shiner & Caspi, 2003), 향후 정신병리 발달에 중요한 예측인자임이 보고되었다(Biederman et al., 1990; Nigg, 2006). 예를 들면 Nigg(2006)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철회(withdrawal)와 낮은 접근성은 우울증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기질적 특성임을 보고하였고, Thomas 등(1968)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 자극에 대한 격렬한 반응, 불규칙한 수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기질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비롯하여 기질과 성격장애 및 심리장애의 관련성을 연구해 온 Cloninger(1987)는 행동 체계(행동 활성화 체계, 행동 억제 체계, 행동 유지 체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기질로 기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기분상태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뢰롭고 안정적인 속성을 지닌 자극 추구(Novelty Seeking: NS),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인내력(Persistence: P)의 네 가지 기질 차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네 가지의 기질 차원 중에서 예외적으로, 위험회피 성향은 개인이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위험회피 성향의 점수가 우울증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Hansenne et al., 1999; Joff, Bagby, & Levitt, 1993). 또한 김영호, 함병주, 이민수, 이화영(2003)의 연구에서는 과거 우울증을 진단 받은 환자가 치료 후 관해 상태에서 정상인과 비교하여 높은 위험회피 성향의 점수를 나타내는 바,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증에 지속적인 기질적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기질 차원 중에서 우울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위험회피 기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위험회피 기질은 위험하거나 혐오스럽다고 판단되는 자극에 접하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유전적인 경향으로,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며, 위험과 실패를 먼저 예상하는 비관적인 사고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대부분 사회적 상황에서 부끄러워하고, 위축되며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다(Stallings, Hewitt, Cloninger, Heath, & Eaves, 1996). 또한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에 있어서 중요한 생물학적, 성격적 취약 요인이고(김보경, 민병배, 2006; 이숙희, 황순택, 2009), 우울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력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김정민, 윤진, 1992).

기질 연구와 더불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손석한 등(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성격, 정서, 자아개념, 가치관 등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다양한 문제행동 및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적 반응은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Gattman, Katz, &

Hooven, 1996), 부모의 반응 양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반응 역시 부모의 자녀양육 가치관 및 양육태도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발달 및 정서 반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와 Reiser(1999)는 다양한 부모의 정서 관련 사회화 행동 변인 중에서도 부모의 반응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이 자녀의 각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각성 수준의 변화는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분노나 슬픔과 같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 정서 결과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나아가 부정적 정서와 관련한 사회화 경험이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여(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Field, 1994)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isenberg와 Fabes(1990)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자녀의 정서 반응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크게 지지적인 반응과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구분하여 자녀의 정서조절과 심리적 부적응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높은 관련성이 있고, 자녀의 정신병리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윤보람, 2010;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Mountford, Corstorphinc, Tomlinson, & Waller, 2007).

한편 개인의 적응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서조절의 기능적인 역할이 시사되면서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Bonanno(2001)의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과 우울 증상과 관련하여 정서조절은 개인의 안녕감과 심리적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은 정신병리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Barrett와 Gross(2001)의 연구에서는 정서에 대한 다양한 조절 방식은 그 방법과 상황, 경험하는 정서에 따라 효과와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정서조절 양식과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와의 높은 관련성을 지지하여 준다. 또한 정서조절 양식 중에서 특히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Cole, Michel, & Teti, 1994; Eisenberg, Champion, & Ma, 2004; Rydell, Berlin, & Bohlin, 2003), 많은 연구자들은 정신병리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Cole, Teti, & Zahn-Waxler, 2003).

최근에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양식과 관련하여 ‘정서표현 양가성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신의 정서 표현이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거나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상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갈등하며 양가감정을 가지고, 억제하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양식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이다(King & Emmons, 1990). 그러나 이러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동시에 이들이 어떠한 상호 작용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금, 부정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기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기질이 스스로의 정서를 잘 조절하거나 혹은 잘 조절하지 못하도록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Garner & Power, 1996). 예를 들면 Fabes와 Eisenberg(1992)의 연구에서 유아가 기질적으로 주의력과 통제력이 낮고, 정서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기질과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을 설명해주고, 나아가 정서조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정서를 교류하고,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 표현에 대해 미리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여, 정서 표현을 갈등하거나 양가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박정희(2009)는 위험회피 기질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또한 윤병수, 정봉교(2009)의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기질과 관련이 있는 행동 억제 체계(BIS)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를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위험회피 기질과 정서표현 양가성과의 직접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지만 선행 연구 결과들은 위험회피 기질이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에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나아가 위험회피 기질이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한 측면인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연구와 더불어 어머니 반응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며, 어머니의 정서조절 양식은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며, 자녀가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정서에 대한 사회적인 정보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Denham, Zoller, & Couchoud, 1994), 어머니의 정서조절 양식은 자녀의 정서조절 양식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고(Eisenberg et al., 1992), 나아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조절 양식의 한 측면인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정서표현 양가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노지영(2009)은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처벌, 과소평가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홍소빈(2011)은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행동 변인이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같은 정서 결

과와 높은 관련이 있음을 지지하여 준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 수준이 높다고 다양한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는데(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2008;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 2008),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은 개인의 심리, 정서적 건강 및 적응에 대한 효율적인 예언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King & Emmons, 1990).

본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기질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고생(청소년 중기)과 여대생(청소년 후기)을 연구 대상으로 정해 정서표현 양가성과 우울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발달상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

1) 청소년 중기(고등학생)의 정서적 특징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성숙 과정을 거쳐 사회, 문화적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되는 성인기 이전까지를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연령 구분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세에서 21세까지를 지칭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따르는 특수한 심리적 문제에 따라 초기 청소년기(12~14세), 중기 청소년기(15~17세), 후기 청소년기(18~21세)로 나누고 있다.

한 개인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전환기이자 인생의 독특한 시기로서 생애 발달 과정 중 청소년기 만큼 다양한 변화와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드물다. 이 시기에는 빠른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성적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변화는 아동기 때의 발달 양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적지 않은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일으킨다(하선근, 2008). 실제로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면에서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들에 비해 기분 좋음을 보고하는 경우가 더 적었는데(Larson, Moneta, Richards, & Wilson, 2002; Larson & Lampman-Petratis, 1989), 이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기분은 부모와의 갈등, 학교 활동,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와의 결별과 같은 부정적인 삶의 사건들과 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부정적 사건에 대하여 아동보다는 10대들이 정서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Larson & Ham, 1993). 또한 청소년들은 성인의 기분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기분이 덜 안정적이어서, 즐거워하다가 슬퍼하고, 자주 흥분하는 변화를 보이는 것과 같이 정서적인

면에서 불안정하고, 갈등하며 고민하는 격동의 시기를 경험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다각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적절한 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였고,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외에도 대인관계와 생활공간의 확대에 의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의 요구와 이에 따르는 불확실감, 청소년이 갖는 지위와 역할의 모호성, 또래집단의 변화에 따른 행동 변화와 동조 의식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가치관 차이 등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오면서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하선근, 2008). 특히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변화들 외에도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비롯된 대학 진학의 부담과 진로 선택의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이홍석, 2005), 동시에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김교현, 2004).

그러나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는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성숙과 더불어 차츰 안정되어 가는데(하선근, 2008), 만약 이 시기에 불안정한 정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에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한다. 예를 들면 Reinherz 등(2000)의 연구에서 우울을 경험할 확률은 청소년기가 일생 중 가장 높다고 하였고, 청소년 중에서 특히 15~18세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나아가 청소년기에 우울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기에도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Garber et al., 1988; Harrington et al., 1990) 심리, 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미치는 우울의 영향은 그 어느 시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우울증의 발생 및 유지에 대한 기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가 이후에 더 큰 부정적인 결과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과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2) 청소년 후기(대학생)의 정서적 특징

이전과 비교하여 오늘날에는 성인 역할로의 이행이 연장되어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성인기 진입 단계(emerging adulthood)라 불리는 새로운 이행 단계가 생겨났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기의 대학생들은 청소년기를 벗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고, 10대 시절보다 더 강하게 대안적 선택들을 탐색한다(Arnett, 2004, 2006). 즉, 부모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는 벗어났으나 새로운 책임과 의무에서는 아직 자유로운 상황이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받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역할과 상황에 기대되는 기술과 방법을 익히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고민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발달 단계상 성인기 입문의 시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그늘 하에서 주체성과 자율성 확립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 혹은 진로 등을 충분히 탐색해 볼 시간적 여유의 부재로 인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격심한 갈등과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적응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새롭게 성취해야 할 많은 발달 과제의 부담으로 방황하거나 혹은 다양한 부적응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Erikson(1976)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성장과 함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으로 많은 변화에 직면하면서, 자신을 형성에 가는 과정(자아정체감 확립)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ovasa(1979)는 Erikson이 설명한 것과 같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은 대학생들의 우울, 불안, 신경증, 자살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년 중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의 우울과 더불어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나아가 우울의 장기적인 영향과 그와 관련된 심각한 심리, 정서적 문제의 예방과 개입을 위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예언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2. 위험회피 기질

최근 들어 개인의 전 생애발달 과정과 적응과의 관계를 논할 때, 개인이 가진 기질(temperament)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질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이론적 접근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행동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질의 생물학적인 근거와 발달상의 연속성이 강조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종 전반에 걸친 공통적 특성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으로, ‘개인차’를 설명한다는 점이다(윤진, 김정민, 1991). 예를 들면 어떤 아동은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비교적 잘 적응하며 생활하는 반면 어떤 아동은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고,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곧 개인의 행동,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의 개인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기질이다. 기질에 대한 연구들에서 기질은 ‘어떤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행동반응’으로 선천적인 개인차를 반영하고, 다양한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향후 정신병리 발달에 중요한 예측인자임이 보고되었다(Rettew & McKee, 2005; Shiner & Caspi, 2003).

기질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 Thomas와 Chess(1977)는 뉴욕종단연구(NYLS) 결과를 바탕으로 기질 차원을 활동수준, 규칙성, 주의산만성, 접근회피성, 적응성, 주의폭과 지속력, 반응강도, 반응역치, 기분특성 등의 9개 범

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더딘 아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 기질 패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질 패턴은 개인의 발달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으며 이후 다양한 장면에서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 자극에 대한 격렬한 반응, 불규칙한 수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Thomas, Chess, & Birch, 1968).

Rothbart와 Mauro(1990)는 유아의 연구를 검토하여 나이든 아동의 연구에서 발견된 것과 중복되는 6개 차원의 기질 즉, 두려운 걱정, 민감한 걱정, 긍정적 정서, 활동 수준, 주의 집중 기간/지속성, 리듬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기질 차원 중 두려운 걱정은 새로운 상황에 접근하거나 물러서는 경향성과 적응성을 반영하고, 민감한 걱정은 억제되거나 좌절될 때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질 차원들은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적응을 설명해준다고 하였다.

기질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비롯하여 기질과 성격장애 및 심리장애의 관련성을 연구해 온 Cloninger(1987, 1994)는 기존의 인성모델들이 학습이론 및 학습과정 기저의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들과 잘 통합되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적응 체계들 기저의 신경생물학적 구조와 일치하는 기질의 차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는 기질을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으로,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서 일생동안 안정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정의하였고,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인내력(Persistence)의 네 가지 기질 차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질 차원들은 각각 행동의 세 가지 근본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 행동 유지 체계(Behavioral Maintenance System; BMS)

와 같은 신경생물학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Cloninger는 기질 차원을 바탕으로 하여 정상인과 심리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네 가지 기질 차원은 기분 상태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뢰롭고, 안정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Cloninger(1987, 1993)의 본래의 이론에서는 TCI의 기질 유형들이 우울증 상태와 독립적이라고 가정했으나, 몇몇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상태가 위험회피 기질의 점수를 유의하게 상승시킨다고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2007)은 위험회피 성향은 개인이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Joff 등(1993)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군을 대상으로 항우울제 치료 전과 후의 TPQ(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점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치료 반응군은 비반응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위험회피 성향의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Hansenne 등(1999)의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성향의 점수가 HAM-D(Hamilton Depression Scale)로 측정된 우울증의 심한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한 특성을 보고한 바(김영호 등, 2003; Abrams et al., 2004; Carter, Joyce, Mulder, Luty, & Sullivan, 1999), 본 연구에서는 Cloninger(1987, 1994)가 제시한 네 가지의 기질 차원 중에서 우울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위험회피 기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위험회피 기질은 위험하거나 혐오스럽다고 판단되는 자극에 접하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유전적인 경향성을 반영한다. 즉, 처벌이나 위협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이 억제되며, 이전에 하던 행동을 중단하는 성향을 의미한다(민병배 등, 2007). 따라서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많고, 불확실한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수줍

어하며,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Stallings, Hewitt, Cloninger, Heath, & Eaves, 1996). 이들은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때 사전에 계획과 준비를 통해 미리 대비를 한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위험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에도 불필요한 걱정과 비관적인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

위험회피 기질은 인간의 행동, 정서와 관련된 주요한 신경생리학적 시스템에 기저한 동기 체계 중 행동 억제 체계와 관련이 있다(김보경, 민병배, 2006; 이현정, 2007). 행동 억제 체계는 처벌과 위험단서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심리적 멈춤의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체계는 불안 관련 단서들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이나 계획했던 행동을 그만두게 하거나, 행동을 계획하지 않게 환경에서 다른 위험 단서들을 찾도록 유도하는 동기 체계로서, 뇌의 중격(septum)과 해마(hippocampus), 그리고 세로토닌(Serotonin) 경로와 관련이 있다(Gray, 1970). 행동 억제 체계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행동 억제 성향의 일차적 원인이 개인이 타고난 생물학적 측면에 있기 때문에 행동 억제 체계가 기질적인 측면이라고 가정한다(Kagan, Reznick, & Snidman, 1987). 예를 들면 Newman, Caspi, Moffitt와 Silva(1997)의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성향을 가진 아동은 수줍어하고, 겁이 많으며,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좌절에 쉽게 속상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수준의 사회적 흥미와 관여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agan(1989)의 1,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종단연구 결과에서, 행동억제 성향이 높은 영아가 성장해서도 여전히 동일한 성향을 가짐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행동억제 성향의 기질적인 안정성을 시사한다.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어머니는 자녀가 가장 처음 접하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며 자녀의 지적 발달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화 요원 (socializer)이라 할 수 있다(연미희, 1998; Goldman, 1995). 따라서 개인의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윤경, 2008). 어머니 특유의 양육행동은 생애초기부터 자녀의 정서적 반응, 정서표현,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녀의 적응적인 생활과 문제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녀의 정서 사회화 과정과 적응을 논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Kopp, 1989).

Denham(1998)은 부모의 양육행동, 정서지도, 부모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인 정서표현이나 정서조절 능력,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등과 같은 다양한 양육행동 변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자녀의 정서와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unola와 Nurmi(2005)의 종단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인 통제를 많이 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높인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적 반응은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Gattman, Katz, & Hooven, 1996)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양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반응 역시 부모의 자녀양육 가치관 및 양육태도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발달 및 반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와 Reiser(1999)는 다양한 부모의 정서관련 사회화 행동 변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반응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부모의 정서 반응이 자녀의 각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각성 수준의 변화는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어머니의 반응에 초점을 두었고, 어머니의 반응 중에서도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정서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정서는 최소화하려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고(Tomkins, 1963), 나아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는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때문이다. 예를 들면 Eisenberg, Fabes와 Murphy(1996)는 분노나 슬픔과 같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 정서 결과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Field(1994)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적, 사회적 행동과 연관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arrett와 Campos(1987)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 경험을 통해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며 나아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와 관련한 사회화 경험이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가 조절의 대상이 되고,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Eisenberg et al., 1998).

Eisenberg와 Fabes(1990)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자녀의 정서 반응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크게 지지적인 반응과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구분했다. 지지적 반응으로는 문제초점 반응(Problem-focused reaction), 정서초점 반응(Emotion-focused reaction), 표현격려 반응(Expressive Encouragement reaction)이 포함되고, 비지지적 반응으로는 처벌 반응(Punitive reaction), 과소평가 반응(Minimizing reaction), 심리적 고통 반응(Distress reaction)이 포함된다. 먼저 지지적 반

응의 하위유형 중 문제초점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자녀의 스트레스를 유발한 문제 상황을 스스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줌으로써 미래에 있을 유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이다. 정서초점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자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으로 위로해 주는 반응이다. 표현격려 반응은 자녀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도록 격려함으로써 자녀의 감정을 위장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반응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유형 중 처벌적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언어 혹은 물리적인 벌을 주거나 꾸짖는 반응이다. 과소평가 반응은 자녀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심각성이나 타당성을 평가절하는 반응으로, 자녀 스스로의 부정적 정서뿐 아니라 타인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까지 별 것 아닌 것으로 무시하게 만들 수 있는 반응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고통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부모 자신의 심리적 괴로움이나 불편함을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불안, 분노 등)로 반응하는 양식이다(Fabes, Eisenberg, & Bernzwing, 1990).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하여 이해하고, 절충하도록 도와주며,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박지숙, 박성연, 2008; 박지혜, 2005; 배주희, 2011; Eisenberg, Fabes, Schaller, Carlo, & Miler, 1991; MacDonald & Parke, 1984; Roberts & Strayer, 1987).

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낮은 공감과 사회적 반응,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및 높은 불안 수준과 관련이 있고(노지영, 2009; 홍소빈, 2011; Buck, 1984; Eisenberg et al., 1991;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Roberts & Strayer, 1987), 자녀의 회피적 대처, 부정적 감정, 다양한 문제 행동 등과 관련이 있

다고 보고되었다(Eisenberg et al., 1996; Gottman et al., 1996;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또한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면 자녀는 정서를 숨기도록 학습되어지고, 이러한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을 만성적으로 받아 온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외현적인 정서표현을 숨기는 것을 배우지만, 정서가 유발되는 갈등 상황에서 고양된 심리적 반응성(Buck, 1984)을 느끼고, 높은 불안(Gottman et al., 1997)을 경험하며, 역기능적인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Eisenberg et al., 1996).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 범주들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처벌적인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에 더 예민해지게 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며(박미정, 2001), 자녀의 낮은 정서조절 능력과도 관련이 있고, 나아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측해 주는 요인이라고 보고되었다(Eisenberg et al., 1999). 어머니의 과소평가 반응은 자녀가 갈등 상황에서 회피적인 태도와 반응으로 일관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고(Eisenberg et al., 1994, 1996),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는 반응은 자녀의 사고억제와 우울 및 불안과 높은 관련성이 보고되었다(Krause et al., 2003). 이러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정서표현을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표출의 의미를 탐색하거나 이를 다루는 방식을 획득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Eisenberg et al., 1998).

따라서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자녀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및 문제 행동 등과 같은 개인의 부적응 측면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비지지적인 반응이 자녀의 정서조절과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청소년기 우울

1) 청소년기 우울의 개념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로 이전의 발달 양상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성적 성숙이 동반되며,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Santrock, 2004).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는 정서적인 경험들은 변화무쌍하면서도 강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발된 불안정한 정서는 청소년들이 가진 발달상의 취약성과 함께 학업 문제 및 또래 관계 등의 외부적인 스트레스 상황과 맞물려 이들을 정서적으로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기분장애로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동반되며, 우울 상태에서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비롯하여 좌절감, 죄책감, 고독감, 무가치함, 허무감, 절망감 등과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가 지속된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증폭되는데 이로 인해 자기비하적인 생각을 하고, 인생에 대해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증가되어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권석만, 2003).

한편 청소년 우울증은 성인의 우울증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지만 DSM-IV의 주요 우울장애 진단기준에서 제시된 청소년 우울의 특징은 성인에게서 주된 특징으로 나타나는 우울한 기분 대신에 짜증스러운 기분(irritable mood)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이 명시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은폐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표현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어서(Anthony, 1970), 반항, 결석, 가출, 음주, 성적문란 등과 같은 행동장애나 범죄행위 등의 가려진 우울증상(masked depression)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

택을 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부적응을 많은 수가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6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을 경험하는 전체 고등학생의 비율은 2005년 32.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전체 40.3%에 이르렀고, 또한 2010년 현재 여자 고등학생(45.9%)이 남자 고등학생(35.4%)보다 우울감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1). 또한 임상적 수준의 우울증을 진단한 횡단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는 우울증의 비율이 낮고, 청소년기에는 거의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유병률은 학령 전기 아동의 1% 미만에서 시작해서 6~12세 아동기에는 2~3%로 증가하고, 13~20세 청소년기에는 6~9%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umas & Nilsen, 2003).

연령에 따른 우울증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린 아동들에게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 15~18세에 성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성인기에 이르러 성비가 2:1에서 3:1에 이른다고 하였고(Hankin, Abramson, Moffit, Silva, McGee, & Andell, 1998), 우울 증상의 수준을 구분한 성차 출현의 종단 연구에서도 역시 소년보다 소녀가 12~13세 이후에 임상적 수준에서 심한 우울을 보고하였다(Costello, Mustillo, Erkanli, Keeler, & Angold, 2003). 이러한 성차에 대해서 Matud(2004)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지각하며, 문제 중심적 대처를 덜 사용하고, 정서 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울 증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 우울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기에도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는데(김봉년, 조수철, 2000; Garber et al., 1988), 우울 아동의 63%가 차후의 진단에서 우울 범주에 속하였고(Nissen, 1971), 우울증으로 진단된

아동 10명을 6년 6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그 중 어떤 아동도 정신 병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50%는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Poznanski, Krahenbuhl, & Zrull, 1976).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우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며,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예방과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는 우울증의 시대라 불릴 만큼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발달상의 취약성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전체 청소년들 중에서도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욱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우울의 장기적인 영향과 그와 관련된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우울의 발달과 초기 예언변인에 대한 연구 및 이해는 매우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위험회피 기질과 우울

위험회피 기질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에 있어서 중요한 생물학적, 성격적 취약 요인이고(김보경, 민병배, 2006; 이숙희, 황순택, 2009), 우울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력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김정민, 윤진, 1992). 또한 위험회피 기질은 청소년기 우울 및 비행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개인의 우울 정도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이주영, 오경자,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및 비임상 집단의 우울 수준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 높은 위험회피 성향이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임진형, 2004; 한창환, 2003; Grucza, Przybeck, Spitznagel, & Cloninger, 2003; Peirson & Heuchert, 2001; Richter, Eisemann, & Richter, 2000; Richter, Polak, & Eisemann, 2003). 김영호, 함병주, 이민수, 이화영(2003)은 위험회피 기질이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치

료 후 관해 상태에서도 정상인과 비교하여 높은 위험회피 점수를 보이고,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증 상태와 독립적이며, 상태와 상관없이 우울에 취약한 기질적 특성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Marijnissen 등(2002)은 우울증 환자는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위험회피 점수를 보이며, 항우울제 치료가 이러한 위험회피 기질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고하여, 위험회피 수준이 우울에 대한 특질적인 지표(trait marker)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상과 같은 많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기질이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예측 인자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Biederman et al., 1990).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자녀의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에서 윤보람(2010)은 부모의 정서 사회화 행동이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불안, 우울과 같은 내재화 정서 문제행동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Krause 등(2003)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을 자녀에게 드러내는 반응은 자녀의 우울, 불안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여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이 자녀의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Linchan(1993)은 개인의 내적 경험이 인정되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며 처벌받는 환경, 즉 정서적인 신호가 무시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환경(invalidating environment)은 자녀의 정신병리 발달의 핵심임을 보고하였다(Mountford et al., 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자녀의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급증하는 청소년 우울에 대한 중재와 개입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 정서표현 양가성

1)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

정서조절이 개인의 적응에 기능적인 역할을 함이 시사되면서 정서조절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특히 정서표현의 긍정적인 측면과 정서표현 억제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정서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으나 점차 정서표현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많은 연구에서 정서표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uck, 1989; Emmons & Colby, 1995; Pennebaker, Barger, & Tiebout, 1989; Rini, 2001).

그러나 정서표현이 분명 적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의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는 그 유용성이 분명하지 않다(최해연, 민경환, 2007). 예를 들면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 화가 나지만, 화 라는 정서를 표현하면 이후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이익 혹은 상대와의 사회적인 관계의 손상을 예상하여서 때로는 자신의 정서 반응을 갈등하거나 억제하게 되는데, King과 Emmons(1990)는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들 사이의 갈등이 정서표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개념을 제안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신의 표현 욕구가 사회적 기준이나 다른 목표들과 갈등을 겪을 때, 이를 갈등하며 양가감정을 가지는(King & Emmons, 1990)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의 한 측면으로, 자신의 정서 표현이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거나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상하여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갈등하며 억제하는 것을 반영한다. 정서표현에 있어 양가감정

이란 갈등의 한 형태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느낌이 동시에 혹은 빠르게 교차하는 것이고, 한 대상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원하지 않는 접근-회피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Emmons & Kaiser, 1995; 최해연,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높은 우울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주관적 안녕감이 낮으며, 정서표현을 적게 한다고 보고되었다(King 등, 1990).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 부적응 및 신체질환이 많다고 보고함으로써(이주일 등, 1997; 최해연 등, 2008), 정서표현 양가성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및 적응에 대한 효율적인 예언인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자신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정서 표현에 대한 불능감’, ‘긍정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 및 ‘정서표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정서표현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신중함을 기하려는 ‘의식적인 행동 통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 요인 군집 간 상관성이 높아 단일 구성 개념으로 본다는 King과 Emmons(1990)의 견해에 따라 단일 요인으로 간주하여 정서표현 양가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위험회피 기질과 정서표현 양가성

기질은 개인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정서 조절에도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경희, 김경희, 1999; 김준희, 1997;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박지숙, 박성연, 2008; 이경님, 2009; 임희수, 2001; Eisengerg, 2000).

위험회피 기질과 정서조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명희(2008)의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기질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윤병수, 정봉교(2009)의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기질과 관련된 행동 억제 체계(BIS)가 높을수록 정서의 억제가 심하고,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고, 박정희(2009)의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이 역기능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나타내며, 특히 행동억제의 하위요인 중 수줍음과 사회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매개함을 보고하였다.

위험회피 기질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이루어져 왔지만 정서표현 양가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위험회피 기질이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나아가 위험회피 기질이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한 측면인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정서표현 양가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음이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노지영, 2009; 홍소빈, 2011; Buck, 1984; Eisenberg et al., 1991, 1996; Fabes et al., 2001; Gottman et al., 1996). 예를 들면 노지영(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비지지적 반응 중에서 처벌적인 반응 양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홍소빈(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반응이 아동의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녀의 성차를 함께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남녀 아동 모두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처벌적인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곽금주, 김민화, 한은주(2005)의 어머니의 반응 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은 유아는 정서조절 상황에서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et al., 1999; Kopp, 1989)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해주며, 특히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의 한 측면인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정서표현 양가성과 우울

정서표현 양가성은 겉으로 드러난 정서의 표현과 행동 양식 뿐만 아니라, 정서 반응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내적 정서경험과 갈등의 수준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때문에(Pennebaker, 1985) 최근 들어 정신병리의 주요 요인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우울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주관적인 안녕감이 낮다고 보고되었다(유주현, 2001; 하창순, 박주하, 2012; King & Emmons, 1990).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높은 사람이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하정, 1997). 최혜연(2008)의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이 우울증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 증상(신체화, 강박증, 불안, 적대감, 공격불안, 피해망상, 정신증)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2008)의 연구에서는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정서자각의 결함과 함께 정서표현 양가성을 강조하였는

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내적 기분에 대해 집중하고 인식하는 정서자각의 중요성과 함께 현재 자신이 느끼는 분노, 우울, 스트레스 등의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심리, 정서적 건강에 필요함을 시사한다(조은경, 1995). 이렇듯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정서표현 양가성은 우울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대한 효율적인 예언 인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King & Emmons, 1990).

Ⅲ.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 문제 1.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정서표현 양가성, 우울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위험회피 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정서표현 양가성과 우울에서 연령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 문제 3.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요인이 될 수 있는가?

가설 3-1. 위험회피 기질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위험회피 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할 것이다.

가설 3-3.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할 것이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표집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는 총 610명이 참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된 문항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 65부를 제외하고 총 5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고등학교 여학생 301명 ($M=15.7$, $SD=.60$), 대학교 여학생 244명 ($M=19.7$, $SD=.74$)으로 구성되었고,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은 13세 이전의 어머니의 반응을 자녀가 회고한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30~40분이었다.

2.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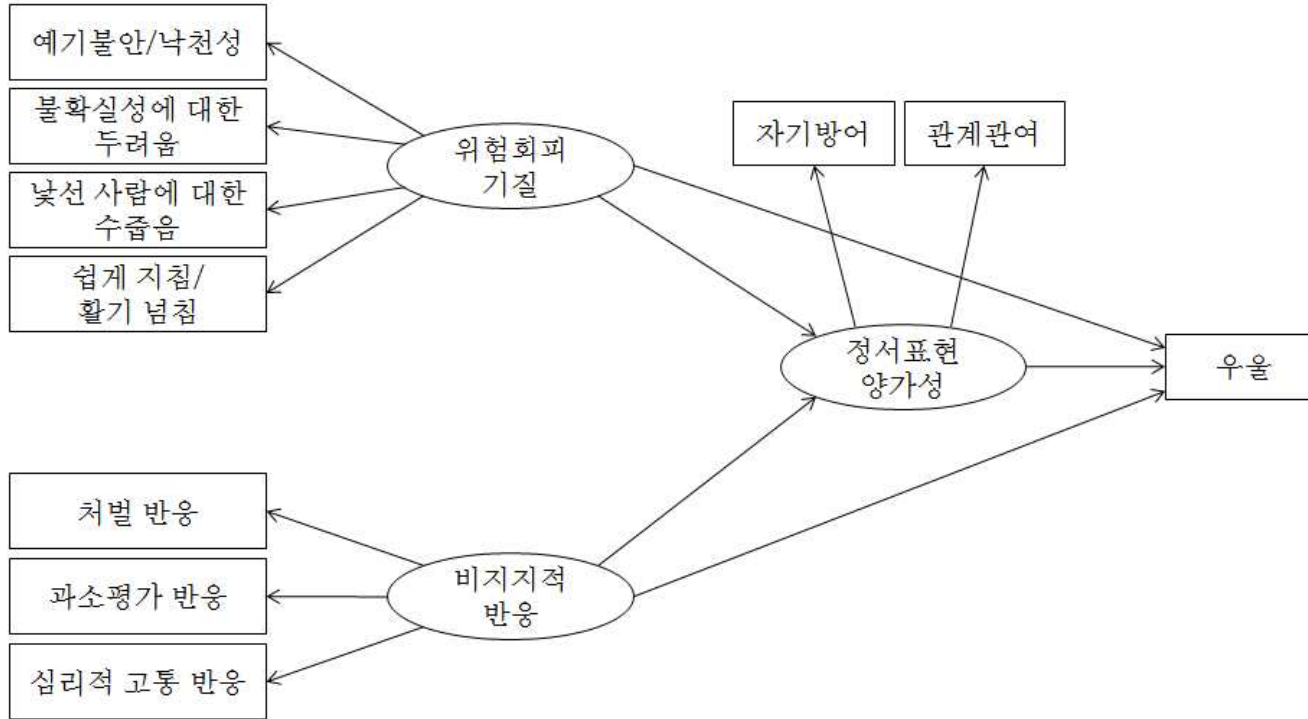


그림1. 연구모형: 부분매개 모형

3. 측정 도구

1) 기질 및 성격 검사-청소년용

Cloninger 등(1994)이 제작한 TCI를 바탕으로 독일의 Schmeck와 Meyenburg 및 Poustka가 개발한 JTCI 12-18을 국내에서 오현숙, 민병배(2004)가 표준화한 한국판 기질 및 성격 검사-청소년용(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을 사용하였다.

독일판 JTCI 12-18은 본래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검사이지만 한국판 JTCI는 대상 범위를 다소 확장하여 중,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황정미, 채규만, 2007).

JTCI를 통해 측정되는 4가지 기질 차원은 자극추구(NS), 위험회피(HA), 사회적 민감성(RD), 인내력(P)의 차원이고, 3가지 성격차원은 자율성(SD), 연대감(C), 자기초월(ST)의 차원이며, 인내력을 제외한 각각의 척도들은 세 개 또는 네 개의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김보경, 민병배, 2006). JTCI는 총 8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0=그렇지 않다, 3=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척도에 해당하는 13문항만 연구에 사용하였다.

위험회피의 하위 척도는 HA1: 예기불안/낙천성(Anticipatory Worry & Pessimism vs Uninhibited Optimism), HA2: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Fear of Uncertainty), HA3: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Shyness with Stranger), HA4: 쉽게 지침/활기 넘침(Fatigability vs Vigor)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험회피 척도의 Cronbach' α 는 .82였고, 하위 요인들의 Cronbach' α 는 .57, .81, .75, .61이었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3).

2) 회고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척도

Fabes, Eisenberg와 Bernzwing(1990)에 의해 개발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의 부모의 반응유형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희정(1995)이 변안, 수정한 것을 박유경(2009)이 성인 자녀가 13세 이전의 부모 반응을 회고하여 보고하는 식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6개의 부모 반응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7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CCNES를 통해 측정되는 부모 반응 유형은 문제초점 반응(Problem-focused reaction: PFR), 정서초점 반응(Emotion-focused reaction: EFR), 표현격려 반응(Expressive Encouragement reaction: EE), 처벌 반응(Punitive reaction: PR), 과소평가 반응(Minimizing reaction: MR), 심리적 고통 반응(Distress reaction: DR)이 포함된다.

Eisenberg와 Fabes(1990)의 연구에서 이러한 6개의 부모 반응 유형을 크게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 해당하는 36문항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CCNES 척도는 총 72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 되어있으며,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는 .90이었고, 하위 요인들의 Cronbach' α 는 .80, .79, .70이었다.

<표1> CCNES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처 별	1, 12, 18, 19, 28, 34, 41, 47, 53, 56, 63, 71	12	.80
과소평가	4, 9, 14, 21, 27, 32, 40, 46, 51, 60, 61, 72	12	.79
심리적 고통	2, 7, 13, 22, 29, 33, 39, 45, 50, 55, 62, 70	12	.70

3)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 표현 갈등 질문지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 이동귀(2007)가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는 정서 표현 상황에서 상반된 목표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양가 감정을 측정한다.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는 2가지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자기방어적 양가성 척도는 정서적인 표현에 대한 무능감과 정서표현의 결과로서 거부되는데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문항을 포함하며, 둘째, 관계관여적 양가성 척도는 자기보호적인 두려움 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문항을 포함한다.

AEQ-K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5=자주 이렇게 느낀다)로 구성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는 .91이었고, 하위 요인들의 Cronbach' α 는 .89, .80 이었다.

<표2> AEQ-K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기방어	1, 2, 3, 4, 5, 6, 7, 9, 10, 11, 12, 14, 15	13	.89
관계관여	8, 13, 16, 17, 18, 19, 20, 21	8	.80

4) 우울 척도

Randloff(1977)에 의해 개발되고 조맹제, 김계희(1993) 등이 번안한 우울 척도로(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의욕상실, 수면장애 등의 내용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CES-D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0=거의 안 느낌, 3=거의 매일 느낌)로 구성 되어있고, 총점의 범위는 0~60점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21점 이상이면 ‘주요 우울’, 15~20점이면 ‘경도 또는 중등도 우울’, 15점 미만이면 ‘정상’ 범주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Cronbach' α 는 .90이었다.

<표3> CES-D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우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90

* 은 역채점 문항

4.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SPSS Window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령에 따른 정서표현 양가성,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위험회피 기질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위험회피 기질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여학생 6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된 문항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 65부를 제외하고 총 5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여학생 301명 ($M=15.70$, $SD=.60$),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교 여학생 244명 ($M=19.67$, $SD=.74$)이 선발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17명(58.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232명(42.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4>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N	%
연령	고등학생	301	55.2
	대학생	244	44.8
어머니 학력	대학원 졸업	28	5.1
	대학교 졸	159	29.2
	고등학교 졸업	317	58.2
	중학교 졸업	26	4.8
	초등학교 졸업	7	1.3
	무학	1	0.2
	어머니 직업	전문직	45
관리직		7	1.3
사무직		43	7.9
기술직		19	3.5
교사		38	7.0
자영업		71	13.0
주부		232	42.6
기타		88	16.1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정서표현 양가성, 우울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은 유의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표5>에 제시하였다.

위험회피 기질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r=.52, p<.01$)을 보였고, 우울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r=.45,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회피 기질의 하위 요인들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위험회피 기질의 모든 하위 요인들이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r=.18, p<.01$)을 보였고, 우울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r=.21,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 요인들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의 모든 하위 요인들이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r=.42,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 요인들과 우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모든 하위 요인들이 우울과 유의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1	1-1	1-2	1-3	1-4	2	2-1	2-2	2-3	3	3-1	3-2	4
1. 위험회피	1												
1-1. 예기불안 / 낙천성	.693**	1											
1-2.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835**	.547**	1										
1-3.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819**	.347**	.534**	1									
1-4. 쉽게지침 / 활기넘침	.567**	.347**	.399**	.217**	1								
2. 비지지적 반응	.195**	.153**	.167**	.101*	.211**	1							
2-1. 처벌 반응	.163**	.112**	.147**	.093*	.166**	.890**	1						
2-2. 파소평가 반응	.153**	.131**	.127**	.060	.194**	.889**	.688**	1					
2-3. 심리적 고통 반응	.195**	.160**	.167**	.116**	.170**	.889**	.710**	.745**	1				
3. 정서표현 양가성	.522**	.494**	.473**	.355**	.254**	.182**	.157**	.177**	.159**	1			
3-1. 자기방어적 양가성	.571**	.489**	.511**	.413**	.291**	.217**	.184**	.187**	.195**	.910**	1		
3-2. 관계관여적 양가성	.372**	.406**	.344*	.227**	.167*	.111**	.099*	.134**	.092*	.903**	.645**	1	
4. 우울	.446**	.380**	.391**	.242**	.412**	.211**	.153**	.164**	.184**	.424**	.508**	.257**	1

* $p < .05$ ** $p < .01$ *** $p < .001$

3. 정서표현 양가성과 우울의 연령에 따른 차이

청소년이 지각한 우울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6>에 제시하였다.

<표6> 우울, 정서표현 양가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

	고등학생 ($N=301$)	대학생 ($N=244$)	t
	$M(SD)$	$M(SD)$	
우울	17.98(10.83)	14.25(10.83)	4.00***
정서표현 양가성	6.35(1.24)	6.45(1.29)	-.89

* $p<.05$ ** $p<.01$ *** $p<.001$

1) 우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우울 수준에 있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43)=4.00, p<.001$). 즉, 고등학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정서표현 양가성

고등학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의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에서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543)=-.89, ns$). 즉, 대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은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위험회피 기질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8.0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 중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를 통해 위험회피 기질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부분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 간 비교를 통해 부분매개가 이루어지는지, 완전매개가 이루어지는지 살펴 보았다.

1) 모형 검증

χ^2 차이검증은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포(nested)되어 있는 경우 모형 비교를 위한 것으로, 각 모형들의 χ^2 값과 자유도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른 유의도 수준을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배병렬, 2007). 이 때 95% 신뢰구간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의 경우, $\Delta df(df_A - df_B) = 2$ 이므로, $\Delta \chi^2 (\chi^2_A - \chi^2_B)$ 값이 임계값 5.99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두 모형 간의 $\Delta \chi^2$ 값이 5.99 이상으로 유의하다면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χ^2 차이검증은 $F \times (\text{표본크기} - 1)$ 의 값을 통해 결정되므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χ^2 차이검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LI, CFI, RMSEA 등의 3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7>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TLI(Turker-Lewis Index)는 기초모형에 대해 제안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를 위해 모형의 간명도(자유도)를 결합하여 측정한 것으로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CFI (Comparative Fit Index)는 자유도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켜 그 영향을 배제하고 모형을 비교하는 비교 부합치로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모형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할 때 기대되는 적합도 지수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연구모형(부분매개)과 경쟁모형(완전매개)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연구모형은 TLI=.953, CFI=.968, RMSEA=.064이고, 경쟁모형은 TLI=.935, CFI=.953, RMSEA=.075로 경쟁모형에 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은 $\chi^2(N=545, df=31)=98.16, p<.001$ 이고, 경쟁모형은 $\chi^2(N=545, df=33)=131.69, p<.001$ 이다. 두 모형의 $\Delta\chi^2=33.53$ 으로 이는 $\Delta df=2$ 일 때, 임계값 5.99 보다 크므로 $p<.05$ 수준에서 두 모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두 모형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자유도가 작은 모형이 채택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즉, 위험회피 기질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매개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7>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df)$	TLI	CFI	RMSEA [90% CI]
연구모형	98.16(31)	.953	.968	.064 [.050, .079]
경쟁모형	131.69(33)	.935	.953	.075 [.062, .089]

2) 경로 분석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지지적 반응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표8>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회피 기질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39$, $S.E = .031$, $p < .001$).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6$, $S.E = .005$, $p < .05$).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셋째,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우울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84$, $S.E = .824$, $p < .001$).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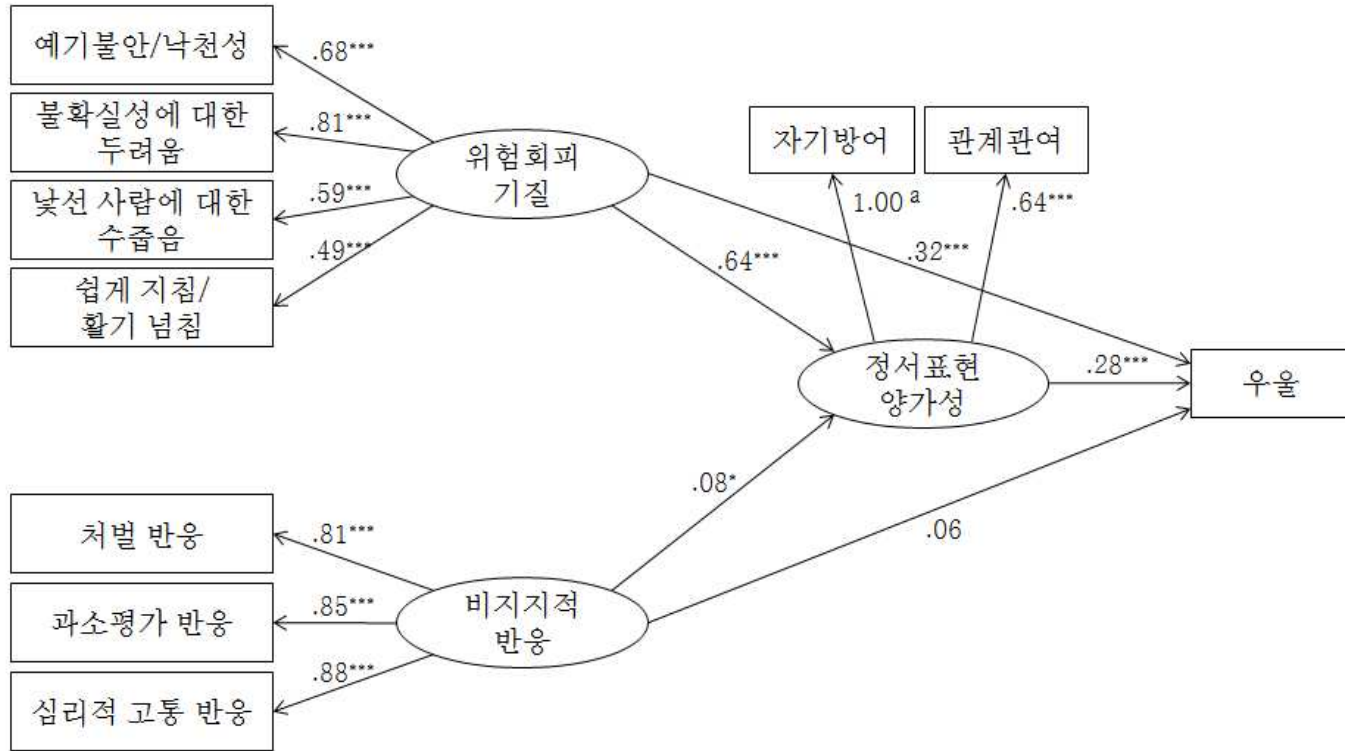
넷째, 위험회피 기질에서 우울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8$, $S.E = .575$, $p < .001$).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서 우울로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3$, $S.E = .076$, ns).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자녀의 우울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8> 경로분석

	경로	경로계수	S.E
위험회피 기질	정서표현 양가성 ← 위험회피 기질	.639***	.031
	우울 ← 정서표현 양가성	.284***	.824
	우울 ← 위험회피 기질	.318***	.575
비지지적 반응	정서표현 양가성 ← 비지지적 반응	.076*	.005
	우울 ← 정서표현 양가성	.284***	.824
	우울 ← 비지지적 반응	.063	.076

* $p < .05$ ** $p < .01$ *** $p < .001$



^aHeywood 현상이 발생하여 Kline(2010)의 권고에 따라서 자기방어의 잔차를 0으로 고정하였다.

그림2. 경로계수

3)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위험회피 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경우 $\beta = .182(.639 \times .284)$ 이었고,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하지 않고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beta = .318(S.E = .575, p < .001)$ 이었다.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경우 $\beta = .022(.076 \times .284)$ 이었고,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하지 않고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beta = .063(S.E = .076, ns)$ 이었다. 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의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9>에 제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추가적으로 사용한 결과, 위험회피 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beta = .182$, 95% 신뢰구간에서 [1.023, 2.487])과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beta = .022$, 95% 신뢰구간에서 [.001, .098])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9> 변인들의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

변 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결과 변수	설명 변수			
우울	위험회피 기질	.318	.182	.500
	비지지적 반응	.063	.022	.085
	정서표현 양가성	.284	-	.284
정서표현 양가성	위험회피 기질	.639	-	.639
	비지지적 반응	.076	-	.076

VI. 논의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첫째,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정서표현 양가성,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둘째, 정서표현 양가성과 우울에서의 연령차를 살펴봄으로써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회피 기질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정서표현 양가성, 우울 간의 관계

위험회피 기질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각각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회피 기질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거나 행동이 억제되는 성향을 가진 위험회피 기질은 자신의 정서 표현이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거나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상하여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 갈등하며 억제하는 등 정서표현의 양가감정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 기질과 관련된 행동 억제 체계가 정서 억제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윤병수와 정봉교(2009)의 연구와 더불어 행동억제 기질이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박정희(2009)와 정지영(2009)의 연구를 연결 짓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위험회피 기질과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상관 연구 결과는 이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위험회피 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힌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과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과 관련이 높은 기질적 특성임을 보고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김보경, 민병배, 2006; 김영호 등, 2003; 이정숙, 문보경, 2010; 황정미, 채규만, 2007; Grucza et al., 2003; Marijnissen, 2002; Peirson & Heuchert, 2001; Richter, 2000; Richter et al., 2003; Schmeck & Poustka, 2001).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미리 세심하게 대비하기 때문에 위험이 실제 현실로 나타날 때 사전의 계획과 준비가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및 위험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두려움이 많으며, 미리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면서 비관적인 사고에 빠져드는 경향으로 평소에도 필요 이상으로 걱정과 갈등이 많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할 수 있다.

셋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조절 및 부정적 정서조절의 한 측면인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5; 노지영, 정윤경 2010; 박유경, 2009; 배주희, 2011; 홍소빈, 2011; Eisenberg et al., 1998; Fabes et al., 2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처벌을 하거나 혹은 자녀의 정서 경험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거나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나 불편감을 보이는 비

지지적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해석하는 기회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을 습득하기 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서적 행동이나 표현을 억제하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정서자각 및 정서표현 등에 대한 혼란, 갈등, 양가감정을 지니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서조절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우울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 및 정신 병리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Denham & Grout, 1992; Denham et al., 1997; Krause et al., 2003; Thompson, 1994).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거부당했다고 느낄 수 있고, 어머니 반응에 대하여 화가 나는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게 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표출되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 자녀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다(Bradly, 2000). 단시간의 부정적 정서 상태는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반응 및 대처를 통해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이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 이는 자녀의 각성 수준을 높이고, 부적절한 행동 및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를 발달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정서표현 양가성은 우울과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개인의 적응과 높은 상관을 있음을 의미하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이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이승미, 오경자, 2006; 이주일 등, 1997; 최해연, 2008; 하정, 1997; Katz & Campbell, 1994; King & Emmons, 1990; Mongraine

& Vetteese, 2003; Pennebaker, 1985).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일상에서 자신의 정서 표현에 대해 항상 갈등하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 상황에서도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지속적으로 양가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유발된 감정과 정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 필요 이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이는 내적인 긴장상태에 만성적으로 처하게 만들고, 자신의 정서경험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여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우울과 정서표현 양가성에서의 연령에 따른 차이

우울과 정서표현 양가성에서의 연령에 따른 집단 차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우울 수준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집단 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우울 수준에서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하여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우울에 걸릴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남정자, 조맹제, 1997). 대학생은 대학 진학과 함께 부모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율과 독립을 추구함으로써 이전 시기에 비해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의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 및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고(김미례, 홍경자, 양승남, 2002; 김혜원, 2006; 정혜경, 박영주, 2003), 부모의 감독 하에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인성교육을 통한 내실화 형성에 초점을 맞

추기 보다는 성적에 의해 평가 하는 실정으로 인해 고등학생은 과중한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우울 수준에서의 차이는 단순히 연령의 차이에 의한 결과이기 보다는 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짐을 알 수 있다.

둘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조절은 아동기 때 주로 양육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점차 자신의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여 스스로 정서를 조절해 나가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는 수준으로까지 발달하게 된다(Kopp, 1989). 이러한 정서조절의 발달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또래관계를 통해 자의식적 정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아 존중감을 위협하는 부정적 정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고, 이 시기에 습득한 정서조절을 포함한 정서적 특징은 이후 개인의 삶과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선정한 청소년 중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정서조절 양식은 이미 이전 시기에서 형성되어 개인의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두 집단의 정서조절의 차이 즉,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의 한 측면인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위험회피 기질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즉, 위험회피 기질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각각의 부분매개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위험하거나 혐오스럽다고 판단되는 자극에 접하면 행동이 억제되고,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성을 지닌 위험회피 기질의 사람은 정서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자신이 없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정서표현으로 인해 돌아올 불이익이나 혹은 상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계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비관적인 사고로 인해 표현을 해도 괜찮은 상황에서도 양가감정을 느끼면서 억제하게 된다. 만성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억제는 자신의 정서 관리에 불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나아가 기저에 미충족된 욕구로 남아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고, 우울과 같은 심리,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가 반드시 나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자신의 정서표현 욕구를 억제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관계주의 문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갈등하고, 억제하는 경향은 어느 정도는 적응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조절 패턴이 개인의 삶에서 만성적으로 작용한다면 낮은 삶의 안녕감 및 정신병리에 취약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타고난 기질 차원을 변화시켜 정서조절 패턴과 우울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기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와 같은 사회적 지지 요인, 환경적인 변인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 기질적인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omas와 Chess(1986)는 타고난 기질적 특성은 때로는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기질은 조절될 수 있고, 조

절 여부를 결정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아동의 기질 양식과 부모가 사용하는 자녀 양육 패턴 간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제안함으로써, 기질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Denham(1993)의 연구에서 자녀가 부정적 정서에 직면했을 때 지지적으로 반응했던 부모의 자녀들은 화를 덜 내고, 타인과 긍정적으로 유능하게 반응하며, 환경에 더 흥미를 보인다고 밝혀졌다. 또한 부모의 지지적인 반응은 자녀가 정서를 건설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여 어머니의 정서 반응이 자녀의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Eisenberg et al., 1998).

따라서 위험회피 기질의 취약한 기질적 특성이 우울로 발전되기 전에 환경적인 개입과 지지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한 삶과 관련이 높은 기능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습득한다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험회피 기질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상관없이 우울에 취약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민과 윤진(2009)의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을 설명하는 강력한 예언력을 가짐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김영호 등(2003)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관해 상태에서도 정상인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위험회피 점수를 나타냄을 보고하여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증 상태와 독립적으로 우울에 취약한 기질적 특성임을 보고한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즉,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은 낯선 상황에서 처벌 및 위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긴장하며 미리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면서 걱정이나 비관적 사고에 빠져는 경향으로 인해 일상에서 걱정과 갈등이 많다. 또한 이들은 에너지 수준이 낮아서 쉽게 지치고, 피곤해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판단력의 어려움을 겪으며 회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위축되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취약하다.

둘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고,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쳤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향성이 상관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그 영향력이 약한 수준으로 나타나 우울을 설명하는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가설 3-3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과 분명한 상관은 가지지만, 이들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 때문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Fabes 등(2001)은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과정은 자녀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반응하며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한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은 자녀가 환경의 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Campos, Campos, & Barrett, 1989).

따라서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정서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부적응 문제 혹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여 준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조절이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다양한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문신, 2003; 박보은, 2008; 박유경, 2009; 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8; Fabes et al., 2001; Goldman, 1995).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가 이후에 정서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갈등하며 표현을 억제하는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을 학습하게 만든다. 또한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을 경험해 온 자녀는 내

면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미해결된 부정적 감정이 억압되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으로 표출되고, 우울을 발달시킬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TCI를 사용한 치료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위험회피 수준과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에 주목해왔는데(김봉석, 2004; Abrams et al., 2004), 어머니의 정서반응 양식과 같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우울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우울의 예방과 조기 개입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연령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두 집단을 선정하여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위험회피 기질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위험회피 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과 높은 정적인 상관 관계에 있으며,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위험회피 기질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 문제 및 성격장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기질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위험회피 기질 및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발달상의 이해를 도모하고, 위험회피 기질과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그리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우울의 발달에 중요한 예언 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심각하게 증가하는 청소년 우울을 이해하고, 상담 및 부모교육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근과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제한점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개인 내적인 기억과 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왜곡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설문은 자녀에 의해 회고된 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응답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회적 설문 조사에 의해 시행된 것이므로 측정 변인들의 장기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 경기도 소재의 여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령, 성별 및 임상집단에 따른 기질과 정서조절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서 사회화 과정 및 우울과 같은 정신 병리의 발생 과정은 다측면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인들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조절 양식 및 우울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조절이나 우울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 김민화, 한은주(2005).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의 관련성. **아동학회지**, 26(6), 173-187.
- 김경희, 김경희(1999). 유아 정서지능의 구인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25-38.
- 김교현(2004).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55-68.
- 김문신(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례, 홍경자, 양승남(2002).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청소년상담연구**, 10(1), 107-125.
- 김보경, 민병배(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 김봉석(2004). 주요우울증환자에서 항우울증 약물치료 전후 위험회피성의 변화.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봉년, 조수철(2000).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의 치료전략.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1(3), 216-281.
- 김영호, 함병주, 이민수, 이화영(2003). 기질성격검사와 관해 상태 우울증. **신경정신의학**, 42(3), 335-339.
- 김용수(1991). 아동기 우울성향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윤진(1992). 청소년기 기질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1), 55-72.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준희(1997). 아동의 정서이해. 기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김혜원(2006). 청소년 우울과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생활사건 스트레스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1995).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정자, 조맹제(1997).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접근책. **보건복지 포럼: 8**, 59-66.
- 노지영(2009).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반응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지영, 정윤경(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71.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2007).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서울: 마음사랑.
- 박미정(2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보은(2008).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유경(2009).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반응과 자녀의 정서조절 전략의 관계: 자녀의 정서인식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희(2009). 아동기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2008). 정서자각 결함, 정서 표현성,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 우울, 스트레스 경험빈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3**(3), 571-581.
- 박지숙, 박성연(2008).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4), 1-6.
- 박지혜(2005).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병렬(2007). Amos 17.0 구조방정식의 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배주희(2010). 유아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0**(4), 605-615.
-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 가정학회지, 36**(7), 111-122.
- 유주현(2000).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병수, 정봉교(2009). 행동억제와 행동활성 체계가 정서자각, 정서억제 및 정서표현을 매개로 한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1), 219-233.
- 윤보람(2010).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진, 김정민(1991). 인간 발달과 기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43-60.

- 이경님(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6), 1209-1219.
- 이숙희, 황순택(2009).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CI-RS)의 구인타당도: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533-548
- 이승미, 오경자(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 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3-128.
- 이정숙, 문보경(2010).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55-74.
- 이주영, 오경자(2010). 청소년기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별의 효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53-72.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이현정(2007). 중학생의 행동억제 성향과 신경증 경향, 주의조절이 불안 증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홍석(2005). 고등학생의 입시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인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윤경(2008). 아동 초기 정서 조절의 발달적 관련 변인. 어머니의 정서 관련 양육 행동 및 그 심리적 기제. **한국발달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 정지영(2009). 중학생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경, 박영주(2003). 대입 수험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 연구**, 10(1), 1-18.
- 조맹제, 김계희(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조은경(1995). 삶의 질의 심리학: 정서적 균형과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25-43.
- 질병관리본부(2011). 제6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실태 조사 통계.
- 최해연(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해연, 민경환(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2008).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료성 및 정서표현 양가성의 군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59-73.
- 하선근(2008).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대인불안 및 정서조절양식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정(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창순, 박주하(2012). 정서표현갈등과 대인불안 및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2, 173-197.

- 한창환(2003).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 품행장애 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성격, 자아상 및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정미, 채규만(2007). 기질과 성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69-982.
- 홍소빈(2011).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성, 정서표현 억제 및 정서표현 양가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brams, K. Y., Yune, S. K., Kim, S. J., Jeon, H. J., Han, S. J., Hwang, J., Sung, Y. H., Lee, K. J., & Lyoo, I. K. (2004). Trait and state aspects of harm avoidance and its implication for treatment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dysthymic disorder, and depressiv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8(3), 240-248.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2006). Emerging adulthood: Understanding the New Way of Coming of Age. In Arnett, J. J., & Tanner, J. L. (Eds.),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rrett, K., Campos, J. (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 II. A functional approach to emotions. In Ofosky, J.(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Wiley.
- Barrett, L. F., & Gross, J. J. (2001). Emotional intelligence. In Mayne, T. J., & Bonanno, G. A. (Eds), *Emotions*, 286–31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iederman, J., Rosenbaum, J. F., Hirshfeld, D. R., Faraone, S. V., Bolduc, E. A., Gersten, M., Meminger, S. R., Kagan, J., Snidman, N., & Reznick, J. S. (1990). Psychiatric correlates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of parents with and without psychiatric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1), 21–26.
- Bonanno, G. A. (2001). Emotion self-regulation. In Mayne, T. J., & Bonanno, G. A. (Eds), *Emotions*, 251–28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radley, S. J. (2000). Affect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Buck, R. W.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94–402.
- Carter, J. D., Joyce, P. R., Mulder, R. T., Luty, S. E., & Sullivan, P. F. (1999). Early deficient parenting in depressed outpatients

i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dysfunction and not with depression subtyp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4(1–2), 29–37.

Cicchetti, D., & Schneider–Rosen, K. (1984). Toward a transactional model of childhood depress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84(26), 5–27.

Cloninger, C. R. (1986). A new conceptual paradigm from genetics and psychobiology for the science of mental health.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3(2), 174–186.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6), 573–588.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Center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Washington University.

Cloninger, C. R., & Svrakic, D.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12), 975–990.

Cole, P. M., Michel, M. K., & Teti, L.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73–100.

Cole, P. M., Teti, L. O., & Zahn–Waxler, C. (2003). Mutual emotion regulation and the stability of conduct problems between preschool and early school ag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1), 1–18.

- Costello, E. J., Mustillo, S., Erkanli, A., Keeler, G., & Angold, A. (2003). Prevalence and Develop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8), 837–844
- Denham, S. A. (1993). Maternal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5), 715–728.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enham, S. A., & Grout, L. (1992).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ping: Relations With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8, 75–101.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1), 65–86.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umas, J., & Nilsen, W. (2003).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Allyn and Bacon.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 Psychology*, 27(3), 448–455.

- Eisenberg, N., Champion, C., & Ma, Y.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An emerging construct. *Merrill-Palmer Quarterly*, 50(3), 236–259.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0(1),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Psychological Theo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Carl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 (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3), 583–602.
- Eisenberg, N., &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Schaller, M., Carlo, G., & Miller, P. A. (1991). The relation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62(6), 1393–1408.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 Emmons, R. A., & Kaiser, H. A. (1995). Goal Orient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Linking goals and affect through the self. In Martin, L. L., & Tesser, A. (Eds.), *Striving and feeling: Interactions Among Goals, Affect, and Self-Regul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Erikson, E. H. (1976). Reflections on Dr. Borg's Life Cycle. *Daedalus*, 105(2), 1–28.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in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Description and Scoring*. Unpublished scale,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s and Human Development, Arizona State University.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 Field, T. (1994). The Effects of Mother's Physical and Emotional Unavailability o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08–227.
- Garber, J., Kriss, M. R., Koch, M., & Lindholm, L. (1988). Recurrent Depression in Adolescents: A follow-up study. *Journal of the*

-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7(1), 49–54.
- Gold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ray, J. A. (1970). The psychophysiological basis of introversion–extra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8(3), 249–266.
- Grucza, R. A., Przybeck, T. R., Spitznagel, E. L., & Cloninger, C. R. (2003). Person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2), 123–130.
- Hanenne, M., Reggers, J., Pinto, E., Kjiri, K., Ajamier, A., & Anseau, M. (1999).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and depressio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3(1), 31–36.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 T. E., Silva, P. A., McGee, R., & Angell, K. E. (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28–140.
- Harrington, R., Fudge, H., Rutter, M., Pickles, A., & Hills, J. (1990).

- Adult Outcom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I
Psychiatric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5),
465–473.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ffe, R. T., Bagby, R. M., & Levitt, A. J. (1993).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major depress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6), 959–960.
- Kagan, J. (1989). Temperament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4), 668–674.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4849), 167–171.
-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513–524.
- King, L. A. (1993). Emotional expression, conflict over ex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601–607.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ovasa, S. 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1–11.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2), 199–213.
- Larson, R., & Lampman–Petraitis, C. (1989). Daily emotional states as report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5), 1250–1260.
- Larson, R., & Ham, M. (1993). Stress and "Storm and stress" in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130–140.
- Larson, R. W., Moneta, G., Richards, M. H., & Wilson, S. (2002). Continuity, Stability, and Change in Daily Emotional Experience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3(4), 1151–1165.
- Linc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5–1277.
- Matud, M. P. (2004). Gender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1401–1415.
- Mongrain,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 Mountford, V., Corstorphine, E., Tomlinson, S., & Waller, G. (2007).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s in the eating disorders. *Eating Behaviors*, 8(1),

48–58.

- Newman, D. L., Caspi, A., Moffitt, T. E., & Silva, P. A. (1997). Antecedents of adult interpersonal functioning: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ge 3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06–217.
- Nigg, J. T. (2006).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395–422.
- Nissen, G. (1971). Depressive syndrom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ymptomatology, etiology and prognosis. *Monogr Gesamtgeb Psychiatr Psychiatry Ser, 4*, 1–174.
- Nolen-Hoeksema, S., & Girgus, J. S. (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3), 424–443.
- Paula, Allen-Meares. (1987).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Work, 32*(6), 512–516.
- Peirson, A. R., Heuchert, J. W.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mood: comparison of the BDI and the TCI.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3), 391–399.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u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2), 82–95
- Pennebaker, J. W., Barger, S. D., & Tiebout, J. (1989). Disclosure of traumas and health among Holocaust survivors. *Psychosomatic Medicine, 51*(5), 577–589.
- Poznanski, E. O., Krahenbuhl, V., & Zrull, J. P. (1976). Childhood

- Depression: A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5(3), 491–501.
- Reinherz, H. Z., Giaconia, R. M., Hauf, A. M., & Paradis, A. D. (2000). General and specific Childhood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nd Drug Disorders by Early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2), 223–231.
- Rettew, D. C., & McKee, L. (2005). Temperament and its role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3(1), 14–27.
- Richter, J., Eisemann, M., & Richter, G. (2000). Temperament, Character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in Healthy Adults: Two Related Concepts?. *Psychopathology*, 33(1), 36–42.
- Richter, J., Polak, T., & Eisemann, M. (2003). Depressive mood and personality in term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mong the normal population and depressive inpati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4), 917–927.
- Roberts, W. L., & Strayer, J. (1987). Parent's responses to emotional distress of their children: Relations with children's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15–422.
- Rothbart, M. K., & Mauro, J. A. (1990). Questionnaire measures of infant temperament. In Fagen, J. W., & Colombo, J. (Eds.),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cy: Reliability, stability, and prediction*, 411–429. Hillsdale, NJ: Erlbaum.
- Rydell, A., Berlin, L., & Bohlin, G. (2003).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adaptation among 5-to-8 year-old children.

Emotion, 3(1), 30–47.

- Schmeck, K., & Poustka, F. (2001). Temperament and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Psychopathology*, 34(3), 159–163.
- Shiner, R., & Caspi, A. (2003).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measurement,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2–32.
- Stallings, M. C., Hewitt, J. K., Cloninger, C. R., Heath, A. C., & Eaves, L. J. (1996). Genetic and environmental structure of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Three or four temperament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0(1), 127–140.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Oxford, England: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Birch, H.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 (1994). Emotional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 Tomkins, S. (1963). Affect, imagery, consciousness. Vol.2: The negative affects. New York: Springer.

ABSTRACT

The effects of harm avoidance,
retrospected mother's nonsupportive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on depression:

Mediation effects of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Yoon-J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harm avoidance temperament, retrospected mother's nonsupportive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parenting were related to the child'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epression.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age differences of the children'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epress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I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erms of the effect of harm avoidance and retrospected mother's nonsupportive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on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545 female students in high school and college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The instruments were: (a)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b)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c)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 (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The data analyses included the reliability and the frequency, the correlation analysis, one-sample *t* tes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PSS 18.0 and AMOS 18.0 statistical programs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harm avoidance temperament and retrospected mother's nonsupportive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had significant positive-correlations with the child'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epression. Also, there as positive-correlation between harm avoidance and retrospected mother's nonsupportive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Second, No ag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age differences in depression. High school students showed more depression than college.

Third, There was mediation effect of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erms of the effect of harm avoidance and retrospected mother's nonsupportive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on depr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ed that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model was accepted. Namely, harm

avoidance temperament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depression. However, retrospectively assessed mother's nonsupportive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had only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It was shown that the higher temperament of harm avoidance, and nonsupportive reactions were, after all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epression may be higher also.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were recommended.

Key words: harm avoidance,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CI,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depression, emotion regulation

부 록

부록1. 기질 및 성격 검사 척도 (청소년용)

부록2. 회고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척도

부록3.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

부록4. 우울 척도

부록1. 기질 및 성격 검사 척도 (청소년용)

	문 항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1	실수를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한다.	3	2	1	0
2	싸우고 난 뒤 쉽게 다시 화해할 수 있다	3	2	1	0
3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다.	3	2	1	0
4	누군가 심술궂게 굴었을 경우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한다.	3	2	1	0
5	모든 일을 가능한 한 확실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	3	2	1	0
6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당장 가지려고 한다.	3	2	1	0
7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3	2	1	0
8	물건을 구입할 때는 사기 전에 항상 어떤 것이 있나 먼저 자세히 살핀다.	3	2	1	0
9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뭔가 실수를 저지르는 상상을 종종 한다.	3	2	1	0
10	일을 아주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대충 처리하는 편이다.	3	2	1	0
11	내가 실제의 내 자신과 많이 달랐으면 좋겠다.	3	2	1	0
12	기적이 있다고 믿는다.	3	2	1	0
13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3	2	1	0
14	운명에 대해서 믿는다. (생의 많은 일들이 이미 정해진 것으로 믿는다)	3	2	1	0
15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하는 편이다.	3	2	1	0
16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 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금방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	3	2	1	0

	문 항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17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매우 수줍어 한다.	3	2	1	0
18	어떤 일이든 결국 이뤄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다.	3	2	1	0
19	무언가에 집중할 때(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을 때), 내 주위의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릴 수 있다.	3	2	1	0
20	나의 솔직한 감정을 남들과 나누지 않는 편이다.	3	2	1	0
21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편이다.	3	2	1	0
22	실수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핀다.	3	2	1	0
23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3	2	1	0
24	문제가 생길 때, 내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	3	2	1	0
25	뭔가를 힘들여 노력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자주 있다.	3	2	1	0
26	화가 날 때 분명히 드러낸다. (크게 화를 내거나, 나가버리거나 하는 등)	3	2	1	0
27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3	2	1	0
28	내게 할 일이 있을 때라도 남을 기꺼이 도와준다.	3	2	1	0
29	종종 나 자신에게 불만을 느낀다.	3	2	1	0
30	재미있는 게임도 하다보면 금방 싫증이 난다.	3	2	1	0
31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남들 앞에서 장기 자랑을 할 때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3	2	1	0
32	고독한 편(혼자 움직이는 편)이다.	3	2	1	0
33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 그것을 사과한다.	3	2	1	0

	문 항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34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곧 잘 제안한다.	3	2	1	0
35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경우 대부분 아주 긴장한다.	3	2	1	0
36	나에게 나쁘게 군 사람에게도 친절하다.	3	2	1	0
37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 다.	3	2	1	0
38	혼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3	2	1	0
39	슬픈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만큼 마음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 는다.	3	2	1	0
40	대개는 꼭 해야 하는 일만 한다.	3	2	1	0
41	너무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	3	2	1	0
42	종종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	3	2	1	0
43	돈이 생기면 바로 쓰기보다 저축하는 편이다.	3	2	1	0
44	친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찾아가서 함께 있어준다.	3	2	1	0
45	뭔가 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협조한다.	3	2	1	0
46	함께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2	1	0
47	쉽게 피곤해져서, 같은 또래보다 휴식을 더 많이 취해야 한 다.	3	2	1	0
48	불쾌하거나 난처한 일을 당했을 경우 그 일이 끝난 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한다.	3	2	1	0
49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하 게 될 때가 많다.	3	2	1	0
50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같이 공부한다거나 같이 놀려고 하지 않는다).	3	2	1	0

	문 항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51	돈이 있으면 바로 써버린다.	3	2	1	0
52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경우가 많다.	3	2	1	0
53	모든 생명체를 연결시키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정신)이 있다고 믿는다.	3	2	1	0
54	잘 참지를 못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	3	2	1	0
56	환경오염에 대해 걱정한다.	3	2	1	0
57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 할 때까지 계속 연습한다.	3	2	1	0
58	내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대개는 잘 모른다.	3	2	1	0
59	남을 도와줘 봤자 내가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3	2	1	0
60	새로운 일을 앞두고 종종 불안해한다.	3	2	1	0
61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 때문에 곤경에 처할 때가 자주 있다.	3	2	1	0
62	청소부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3	2	1	0
63	고민이 있으면 친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한다.	3	2	1	0
64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면 불안해지곤 한다.	3	2	1	0
65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쉽게 성을 낸다.	3	2	1	0
66	모든 생물(동물과 식물까지)이 소중하며 그들 모두가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2	1	0
67	갈등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양보하는 편이다.	3	2	1	0
68	슬픈 영화를 보면서 잘 운다.	3	2	1	0

	문 항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69	누군가 재밌는 것을 하자고 하면 곧바로 함께 어울린다.	3	2	1	0
70	뭔가에 열중하면 시간 가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3	2	1	0
71	내가 공정한지 아닌지 또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3	2	1	0
72	즉흥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이나 별난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3	2	1	0
73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많이 노력한다.	3	2	1	0
74	이루고 싶은 분명한 목표가 거의 늘 있다(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새 친구를 사귀는 것, 또는 뭔가 특정한 일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 등).	3	2	1	0
75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될 때 미리부터 걱정을 많이 한다.	3	2	1	0
76	뭔가에 호기심이 있을 경우는 위험이나 금지 사항 같은 것도 개의치 않는다.	3	2	1	0
77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일을 재빨리 처리하는 편이다.	3	2	1	0
78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3	2	1	0
79	어떤 정신적인 힘(예를 들면 하느님, 수호신)이 나를 도와준 적이 있다고 믿는다.	3	2	1	0
80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칠만한 말은 잘 하지 않는다.	3	2	1	0
81	어려움에 처했거나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을 준다.	3	2	1	0
82	사소한 병이나 스트레스에서 회복하는 데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3	2	1	0

부록2. 회고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척도

상황1) 어릴 적 아파서(또는 다쳐서) 친구의 생일파티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화를 낸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화를 가라앉히도록 방으로 가라고 하셨다.	1	2	3	4	5
2	나에게 화를 내셨다.	1	2	3	4	5
3	내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우셨다 (예를 들면, 생일 파티가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1	2	3	4	5
4	나에게 파티에 빠진 것은 큰일이 아니라고 말하셨다.	1	2	3	4	5
5	나의 화나고 속상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1	2	3	4	5
6	나를 위로해 주고 함께 재밌는 놀이를 하여 파티를 가지 못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아지게 하셨다.	1	2	3	4	5

상황2) 어릴 적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자전거가 부서졌습니다. 이럴 때 내가 화를 내고 운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침착하려 하시고, 어머니 자신은 불안해지지 않으려 하셨다.	1	2	3	4	5
8	나를 위로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셨다.	1	2	3	4	5
9	내가 과민반응을 한다고 말하셨다(예를 들면 "아기나 우는거야" 라고 말한다).	1	2	3	4	5
10	나와 자전거를 함께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셨다.	1	2	3	4	5
11	나에게 울어도 괜찮다고 하셨다.	1	2	3	4	5
12	나에게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다음에 자전거를 못 타게 하겠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상황3) 어릴 적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내가 운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내가 부주의한 것에 흥분하여 소리치셨다.	1	2	3	4	5
14	내가 과민반응을 한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15	나에게 찾아보지 않은 장소를 생각해 보게 하셨다.	1	2	3	4	5
16	재밌는 일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나의 주의를 바꾸셨다.	1	2	3	4	5
17	속상할 땐 울어도 괜찮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18	내가 부주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라고 말하셨다.	1	2	3	4	5

상황4) 어릴 적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하며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떨면서 운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계속 울면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할 거라고 말하셨다 (예를 들면, TV를 못 보게 하셨다).	1	2	3	4	5
20	나의 두려움에 대하여 말하도록 격려했다.	1	2	3	4	5
21	주사 맞는 일은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하셨다.	1	2	3	4	5
22	울어서 엄마를 난처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셨다.	1	2	3	4	5
23	주사를 맞기 전이나 후에 나를 위로하셨다.	1	2	3	4	5
24	별로 아프지 않게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셨다(예를 들면, 몸에 힘을 주지 말라고 하거나 숨을 깊이 들이마시라고 말해 주셨다).	1	2	3	4	5

상황5) 어릴 적 공원을 갔는데 다른 아이가 놀리고 함께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내가 울려고 한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내가 우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지켜보셨다.	1	2	3	4	5
26	만약 울기 시작한다면 곧 집으로 갈 거라고 말하셨다.	1	2	3	4	5
27	기분이 나쁠 땐 울어도 괜찮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28	나를 위로해주고 즐거운 일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주셨다.	1	2	3	4	5
29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주셨다.	1	2	3	4	5
30	내 기분이 곧 나아질 거라고 말하셨다.	1	2	3	4	5

상황6) 어릴 적에 오후 동안 친구 집에 있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불안해하고 화를 낸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에 대해 말해 줌으로써 나를 달래셨다.	1	2	3	4	5
32	엄마가 없어도 겁먹지 않고 친구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도우셨다(예를 들면,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인형을 가지고 간다).	1	2	3	4	5
33	나에게 과민반응하지 말고, 아기 같지 굴지 말라고 말하셨다.	1	2	3	4	5
34	때 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친구네 집에 놀러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35	나의 반응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아 하셨다.	1	2	3	4	5
36	나의 불안한 감정에 대해 말하도록 격려했다.	1	2	3	4	5

상황7) 어릴 적 친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역력하게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7	나의 실망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셨다.	1	2	3	4	5
38	선물은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39	내가 실망한 것에 대해 관여치 않으셨다.	1	2	3	4	5
40	내가 지나친 반응을 한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41	친구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를 꾸짖으셨다.	1	2	3	4	5
42	재미있는 놀이를 하여 나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셨다.	1	2	3	4	5

상황8) 어릴 적 친구와 함께 그룹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계속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럴 때 내가 당황해서 운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3	나를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나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셨다.	1	2	3	4	5
44	내가 과민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셨다.	1	2	3	4	5
45	어머니 자신이 기분이 언짢고 당혹스러워 하셨다.	1	2	3	4	5
46	나에게 계속 울면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47	나의 당혹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격려하셨다.	1	2	3	4	5
48	엄마와 함께 연습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하자고 말하셨다.	1	2	3	4	5

상황9) 어릴 적 운동경기에 참가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지나치게 긴장하였습니다. 이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9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긴장을 풀 수 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도우셨다(예를 들면, 준비운동을 하거나, 관중을 보지 말라고 말한다).	1	2	3	4	5
50	나를 위로해주고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셨다.	1	2	3	4	5
51	어머니 자신은 초조하지 않고 침착하게 계셨다.	1	2	3	4	5
52	내가 그 일에 대해 아기처럼 군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53	만일 내가 계속 초조해 한다면 집으로 가야한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54	나의 초조하고 긴장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했다.	1	2	3	4	5

상황10) 어릴 적 무서운 TV 프로그램을 본 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잠을 자러 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5	내가 무엇이 무서웠는지 말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1	2	3	4	5
56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에 당황해 하셨다.	1	2	3	4	5
57	내가 지나친 반응을 한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58	잠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셨다(예를 들면, 인형을 가지고 잔다, 불을 켜고 잔다).	1	2	3	4	5
59	자러 가지 않으면 다시는 TV를 못 보게 하겠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60	무서운 내용을 잊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다.	1	2	3	4	5

상황11) 어릴 적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그 중 한 아이에게 욕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내분을 참지 못해 울려고 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그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하셨다.	1	2	3	4	5
62	어머니 자신도 흥분하셨다.	1	2	3	4	5
63	곧장 집에 가자고 말하셨다.	1	2	3	4	5
64	다른 아이가 자신을 괴롭힐 때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생각하도록 도우셨다.	1	2	3	4	5
65	나를 위로해주고 그 사건을 잊을 수 있도록 함께 계임을 하셨다.	1	2	3	4	5
66	놀림을 당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했다.	1	2	3	4	5

상황12) 어릴 적 나는 낯선 사람과 있는 것을 겁내고 싫어했는데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항상 자기 방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67	내가 손님들을 만날 때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우셨다(예를 들면,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만난다 등).	1	2	3	4	5
68	나에게 불안해해도 괜찮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69	손님들과 재밌는 일에 대해 말함으로써 내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	1	2	3	4	5
70	나의 반응 때문에 당황스럽고 불편해 하셨다.	1	2	3	4	5
71	손님이 오시면 거실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72	내가 아기 같이 행동을 한다고 말하셨다.	1	2	3	4	5

부록3.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

	질 문 사 항	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대체로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이렇게 느낀다	매우 이렇게 느낀다
1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	2	3	4	5
2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된다.	1	2	3	4	5
3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1	2	3	4	5
5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1	2	3	4	5
6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7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싶지만, 웬지 망설여진다.	1	2	3	4	5
8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당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느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1	2	3	4	5
10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감정들을 감춰두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1	2	3	4	5
11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1	2	3	4	5

	질 문 사 항	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대체로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이렇게 느낀다	매우 이렇게 느낀다
12	내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했더라면 하고 회상할 때가 많다.	1	2	3	4	5
1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14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5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16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1	2	3	4	5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1	2	3	4	5
18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19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남자/여자친구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남자/여자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억누르려 한다.	1	2	3	4	5
20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21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더라도 나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1	2	3	4	5

부록4. 우울 척도

	문항	거의 안 느낌	가끔 느낌 (1-2일 /주)	종종 느낌 (3-4일 /주)	거의 매일 느낌 (5일 이상 /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1	2	3	4
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1	2	3	4
3	어느 누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4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었다.	1	2	3	4
5	비교적 잘 지냈다.	1	2	3	4
6	상당히 우울했다.	1	2	3	4
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8	앞 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1	2	3	4
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10	나는 적어도 보통 사람들 만큼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11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2	3	4
12	두려움을 느꼈다.	1	2	3	4
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1	2	3	4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15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	2	3	4
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	2	3	4
18	마음이 슬펐다.	1	2	3	4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20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	2	3	4